

역사 책을 만나다

## 짧지만 복잡한 역사 총괄 정리

미국불교사 이야기  
미주현대불교 · 운주사퍼냄 | 2인원

이 책은 학술적 성격과 대중 교양서적 성격을 지닌, 미국 내에서 미국 불교사를 다룬 최초의 본격적인 저서다.

저자 릭 윌즈는 1960년대의 격변기 학생운동에 본격 투신하여 불법활동에 연루되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퇴학당한다. 학장으로부터 '서구문명에 위협을 가할 인물(a danger to Western civilization)'로 낙인찍히면서다. 이후 그는 잡지사에서 언론경력을 시작해 편집자로, 주간으로, 때로는 창간자로

이 아니었다. 티벳 불교의 수행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시각화 수행을 병행하면서, 최소한 10만 번의 절, 보살계 10만 번 암송, 10만 번의 염불, 10만 번의 만트라 불경, 10만 번의 만트라 암송은 필수 코스다. 티벳 불교를 수행하는 많은 미국의 청년, 장년 불자들이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본수행도 아닌 이런 예비수행을 확실하게 모두 해내는 모습에서 역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을 통해 미국 불교에 대해 몇 가지 전망이 제시된다. 우선, 불교가 안정적으로 보존되는 곳으로 미국이 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이 각 나라의 불



### 여러 종파 시행착오 속 정착

### 미국을 통불교 거점으로 전망

활약하다 영성에 눈을 뜬다. 티벳 불교의 초·p 트롱파를 비롯한 티벳 불교 지도자들로부터 사사받아 수행정진하며, 포교활동에 진력하고, 불교잡지와 영성잡지에 기고하는 등 저술활동을 한다. 1969년에 미국인들에게 세계의 기아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5년 뒤 미국 뉴욕의 극빈자 거주 지역에서 홀리스의 고통을 몸소 체험한다. 암으로 최후를 맞이 직전의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한다. "세계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 따윈 없어요. 사실 제 목숨이 제 질병을 위협하고 있죠. 제 목숨이 방해해서 질병이 제자리를 잡기 어렵거든요. 제게는 질병을 위협하는 목숨이 있는 셈입니다." 이렇듯 그는 철저한 불교적 관점을 견지한 상태로 치열하고 비판적인 미국 지식인의 한 전형적 삶을 살았다. 저자의 삶도 삶이려니와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소위 유럽계 미국인 불교도의 치열성과 진지함에 역자로선 자못 감동받은 적이 한두 번

교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지 모르는 곳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또한, 각 나라의 다양한 종파의 불교가 미국으로 들어와 온갖 시행착오를 거쳤으므로 어느 특정 종파 우위의 불교가 확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잘 되면 통불교적 전통이 미국을 거점으로 확립될지 모를 일이다. 이어, 미국불교는 미국 자체의 개인주의적 문화의 반영으로 재가자 중심의 불교라는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새로 일어나는 미국 불교의 혁명적인 방향을 규정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이 외에도 미국 불교계에서는 '사마타'라고 불리는 호흡명상으로부터 수행을 시작하도록 거의 모든 계보에서 권장함으로써 일정 정도 수행의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1년에 쓰인 이 책은 아무래도 그 뒤 미국 불교학자들이 꼼꼼히 학술적 연찬을 통해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미치지 못하는 부정확성이 더러 보인다.

한창호 / 전문번역가

## 한시와 수행의 내면이 만나다

### 홍선 스님 '맑은 바람 드는 집', 손글씨도 수록



시심과 오늘날 산중에서 정진하는 스님의 이야기가 세월의 무게를 견어내고 청아한 협연을 하는 셈이다.

직지사성보박물관의 관장 홍선 스님이 내 놓은 <맑은 바람 드는 집>은 시심과 불심과 정갈한 손 글씨가 기연(機緣)을 펼쳐 보인다. 옛 시들은 중국의 문인 학자에서 우리나라의 문객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가려냈다. 그 넓은 조망권에서 뽑아 올린 시들을 계절별로 나누어 스님이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

며 사유한 글들과 배대 시켰다. 운치 있는 종이에 스님이 직접 쓴 글씨를 또한 책 읽는 맛을 더해준다. 책의 제목은 직지사성보박물관이 '청풍묘(淸風寮)'였던 데서 따온 것이다.

금석학에 깊은 조예를 지닌 홍선 스님이 번역한 한시들은 투명하고 간결하다. 한시에 대한 거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 풍경을 읊은 시는 한 폭의 그림으로 보이고, 심경을 노래한 시는 작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시의 분위기와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배대 된 산문들도 정정하긴 마찬가지다.

산사에서 보는 자연들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유의 눈길로 관찰하고 있다. 스님의

글은 계절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풍경에서 느끼는 구도자의 심경이 때로는 매끈 매끈하게 때로는 질박하게 그려져 있다. 스님은 시를 고르는데 있어 이미 많이 알려진 시는 제외했다. 또 지나치게 사변이 어렵고 복합의미를 지녀 난해한 작품들도 배제했다. 아름다운인연 퍼냄 | 1만 3500원

인연태 기자



홍선 스님

## 내가 받는 것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라

법정 스님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과경>에는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내가 받는 것을 보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라."는 가르침이 있다. 전생과 내생은 지금에 달려있다.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도 과거의 이야기

라기보다는 지금의 이야기이고 미래에도 가능하고 유효한 이야기다.

전생이야기가 하나의 경전을 이루는 것도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이 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연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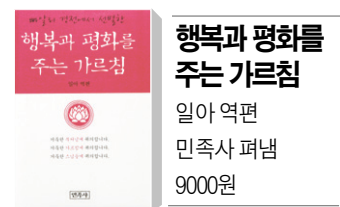
베를 엮는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인연 이야기

인연 이야기

법정 지음  
문학의 숲 펴냄  
1만1500원

## 인간적인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들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일야 역편  
민족사 펴냄  
9000원

빠알리 경전의 가르침은 매우 심상하다. 부처님의 육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빠알리 경전의 가르침들은 간결하면서도 다정하다.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을 펴낸 바 있는 역자가 쓰임새별로 빠알리 경전의 가르침을 골라 묶었다.

역자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부처님의 지

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만날 수 있으며 불자로 살아가 정말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제1편은 예불 예경 의식 기도 독경을 위한경전 모음으로 제2편은 공덕 짓기와 간병 보시 효도 등 이타행을 가르치는 말씀들을 모았다. 제3편에서는 늙음과 병들 슬픔과 한탄 등 고통을 극복하는 지혜를 만날 수 있으며 제4편에서는 친구 우정 등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들을 들을 수 있다.

## 느리게 살면 더 많은 걸 본다

우리 시대의 젊은 서정시인으로 통하는 문태준 시인의 첫 산문집이다. 제목에서 주는 느낌 그대로 시인은 느린 삶의 지혜를 소곤소곤 전하고 있다. 시인 자신이 관찰하고 느끼고 마음에 새겨 넣은 작고 느린 것의 아름다움을 시를 쓰듯 편지를 쓰듯 그렇게 전하고 있다.

급박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잃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 느리게 사는 것이 너무 빨리 잃어버리는 병증을 보완해 준다는 것이 시인의 견해다. 빨리 걸으면 길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 없다. 걸음의 속도를 늦추는 만큼 많은 것이 보

인다. 시인이 집에서 직장에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느림의 미학들을 공유해 보자.

느림보 마음

느림보 마음

문태준 지음  
마음의 숲 펴냄  
1만2000원



'불출현' 새 회장 지홍 스님

## "108권 불서읽기 운동 전개"

"불교출판의 활성화를 위해 11년간 수고하신 전임회장 원택 스님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것을 상의하며 협회와 불교출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월 16일 불교출판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무엇보다 회원사들의 단합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를 통해 협력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출판문화상에 '독자상'을 신설해 독서인구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전국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들로부터 독서운동을 전개하거나 법보 시를 많이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 등을 추천 받아 시상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불서읽기 캠페인을 전개해 '1인 108권 독서하기' 및 1가정 108권 장서하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스님은 "가정에서 책읽기 문화가 정착될 때 독서인구의 증가와 출판 시장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협회는 종단과 교계 언론사 등을 연계해 불서읽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종립학교와 파라마타, 불자교사단체들과 연대해 청소년 독서인구 확대를 견인하고 사찰도서관 설립 운동도 보다 폭넓게 전개하겠다는 것이 지홍 스님의 각오다.

인연태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담담하면 물이 맑아	법륜	정토
4	자라신 스님들의 뒷말리는 수행이야기	천진 현현	불광출판사
5	세바늘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6	언젠가 이 세상이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삶은 고가야 다	대행	한미음선원
8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진	마음의 숲
9	쉬고 또 쉬고	무어	새로운 사람들
10	광명산악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타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권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한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한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빛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승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빛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등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창

여의불상

만사행통의 효력이 있는 여의불상을 귀하신 몇 분에게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의주 여의주란 글자 그대로 마음먹은 뜻과 같이 되어지는 구슬로서, 전통적인 비법으로 여러 광물질을 수년간의 숙성과 특수공정 과정을 거쳐 만든 신비의 영물입니다.

· 상하 : 9cm  
· 좌우 : 5cm  
· 앞뒤 : 4.5cm

여의불상을 모시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만사행통의 대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 장애 상담 환영 02)924-3500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선종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